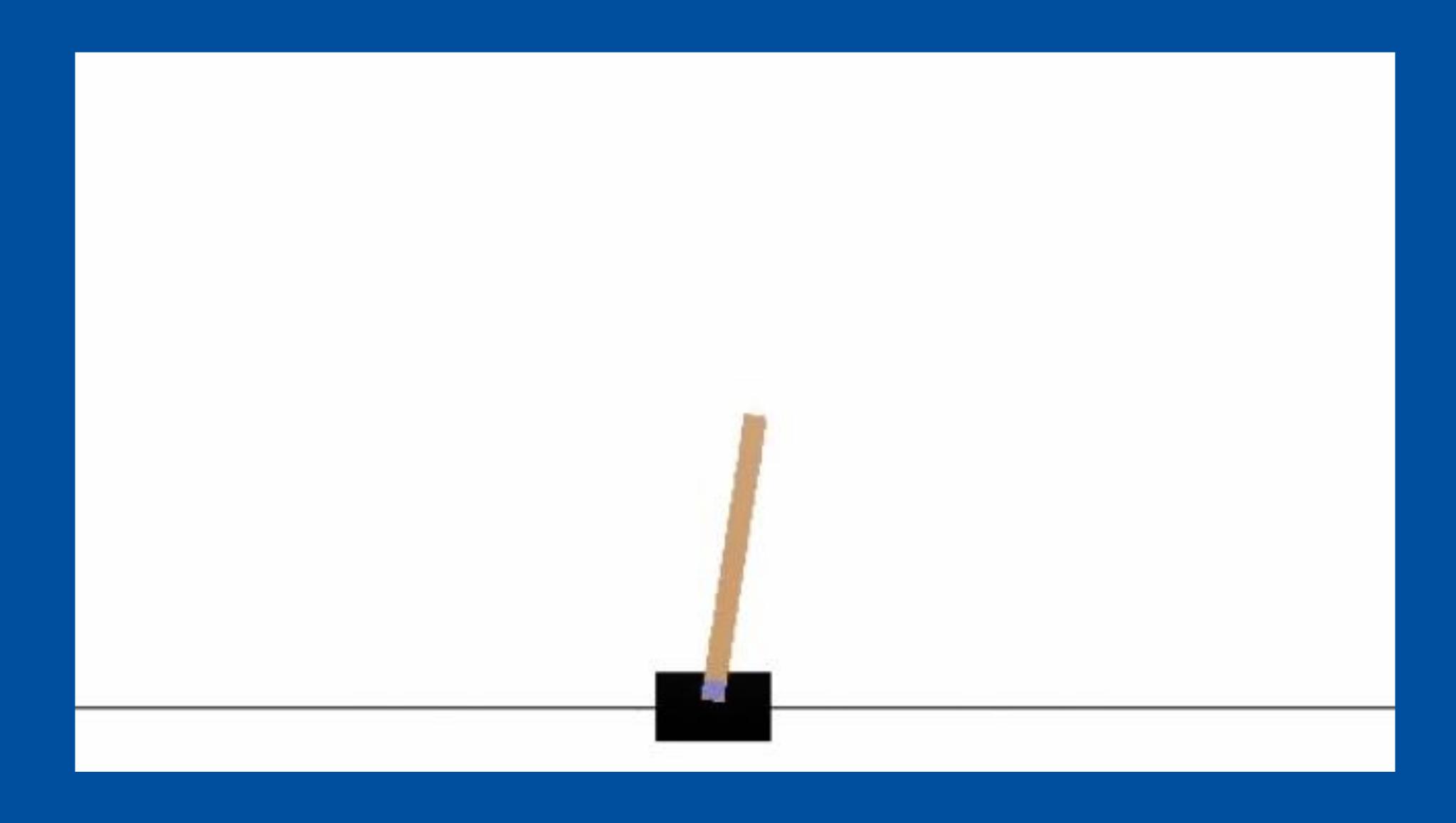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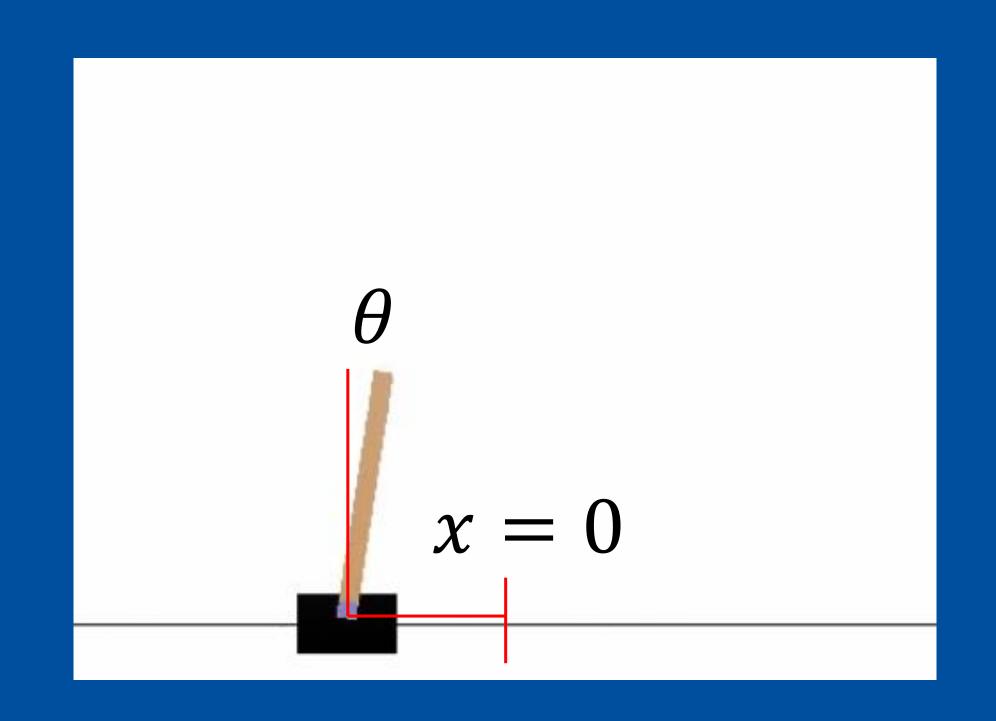
국민대학교 KPSC & AIM 스터디 – 강화학습을 이용한 체스 AI 만들기

Introduction to RL, Week 10

Chris Ohk
utilForever@gmail.com



- 검은색 상자(카트)를 +1, -1의 힘으로 밀어 갈색 막대(폴)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
- 카트의 위치 x가 ± 2.5 를 벗어나거나 θ 가 ± 15 °를 벗어나면 에피소드가 끝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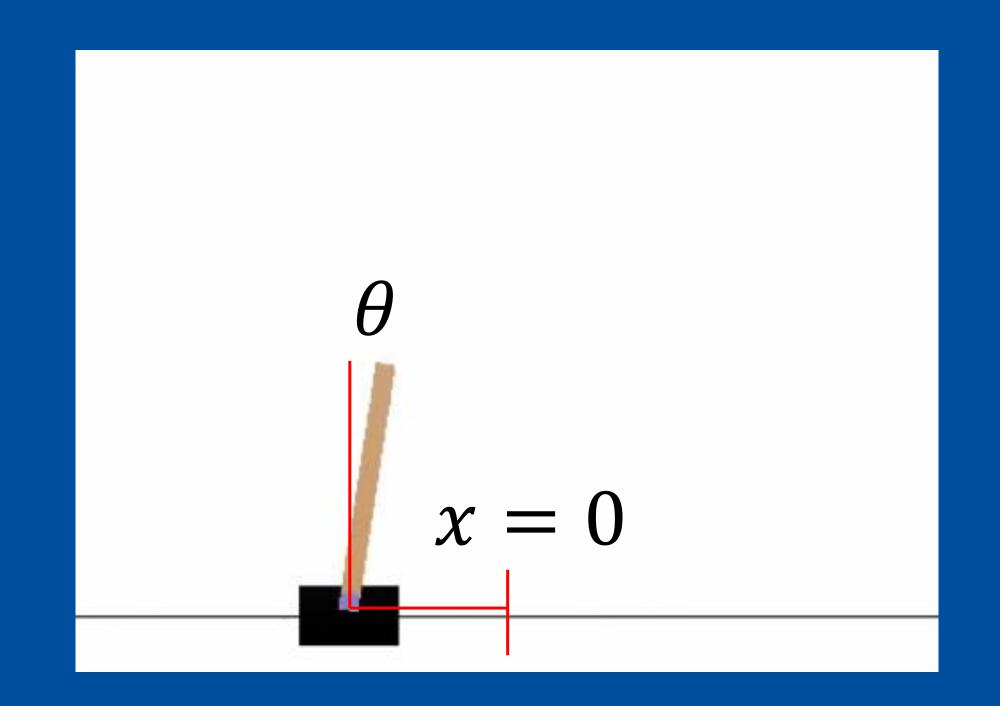


상태 S

행동 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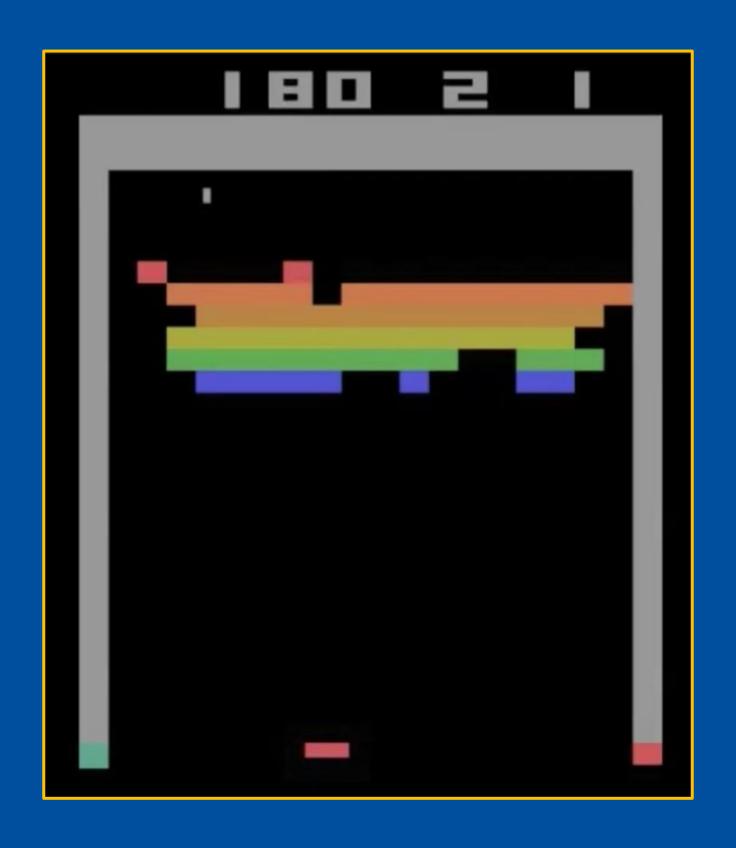
$$S = egin{bmatrix} X & lpha \ \dot{x} & lpha \ \theta \ \dot{ heta} \end{bmatrix}$$
 각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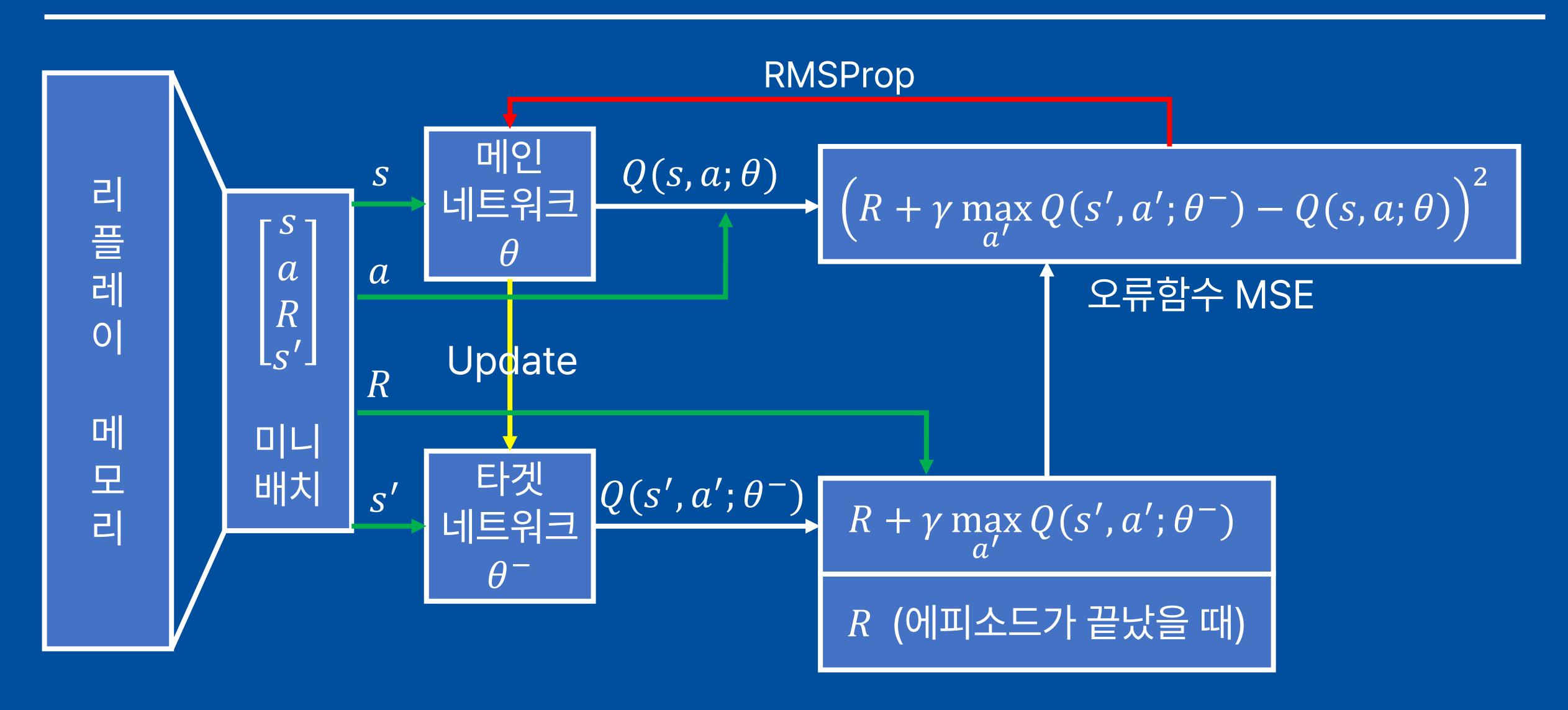
$$a = \begin{bmatrix} +1 \\ -1 \end{bmatrix}$$



- 상태의 위치, 속도, 각도, 각속도 모두 연속적인 실수다.
- 그러므로 카트폴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만들어 풀 수 없고,
 큐함수를 근사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. → 인공신경망을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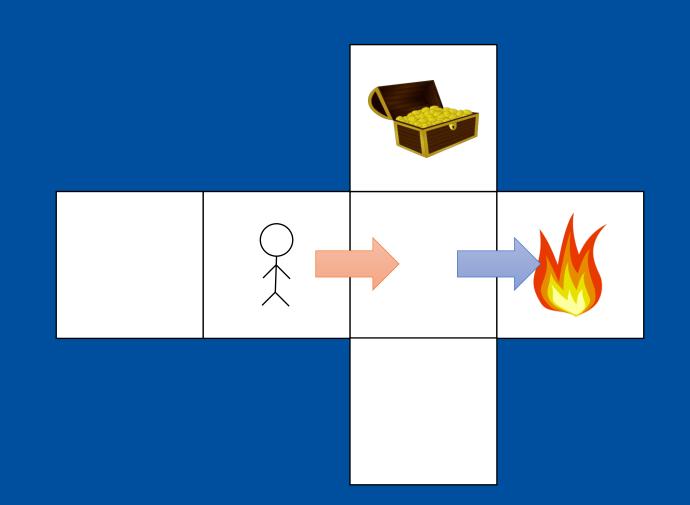
- 딥살사(Deep SARSA) : 온폴리시(On-policy)인 살사 기반
- 딥-큐러닝(DQN): 오프폴리시(Off-policy)인 큐러닝 + 인공신경망





- DQN의 특징
 - 1. 오프폴리시(Off-policy)
 - 2. 리플레이 메모리 + 미니 배치
 - 3. 타겟 신경망

- 온폴리시(On-policy) vs 오프폴리시(Off-policy)
 - 온폴리시 (예 : 살사) $Q(S_t, A_t) \leftarrow Q(S_t, A_t) + \alpha(R_{t+1} + \gamma Q(S_{t+1}, A_{t+1}) Q(S_t, A_t))$
 - 학습하는 정책과 행동을 고르는 정책이 항상 같아야 한다.
 - 다음 상태에서 수행한 안 좋은 행동이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친다.
 -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과거의 경험들을 학습에 이용 불가능해 비효율적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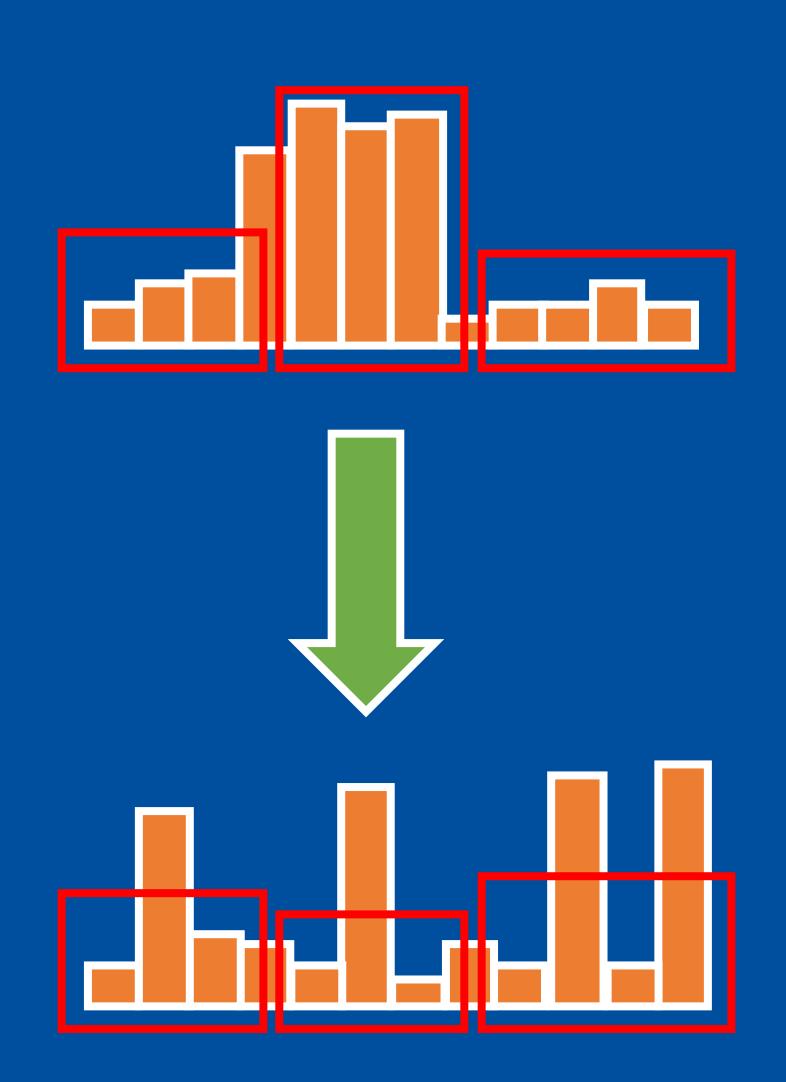
- 온폴리시(On-policy) vs 오프폴리시(Off-policy)
 - 오프폴리시 (예:큐러닝)

$$Q(S_t, A_t) \leftarrow Q(S_t, A_t) + \alpha(R_{t+1} + \gamma \max_{a'} Q(S_{t+1}, a') - Q(S_t, A_t)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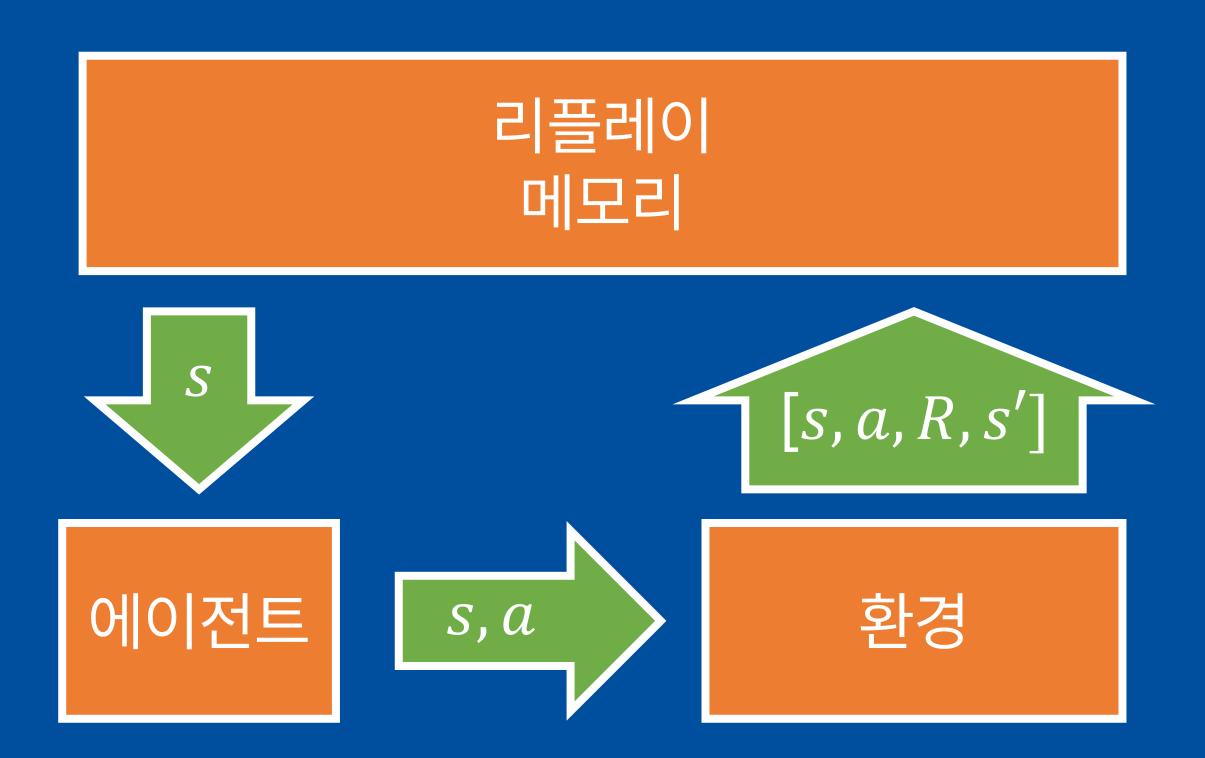
• 학습하는 정책과 행동을 고르는 정책이 달라도 된다.

과거에 경험한 에피소드들도 학습에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다. > 효율적

- 리플레이 메모리 + 미니 배치
 - 강화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알 수 없는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.
 - 하지만 게임과 같은 환경에서는 데이터들이
 행동에 대한 연속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심하다.
 - 그래서 데이터들을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하고,
 이 중 샘플을 고르는 미니 배치 방법을 사용한다.



- 리플레이 메모리 + 미니 배치
 - 리플레이 메모리는 환경에서 받은 [s, a, R, s']을 저장한다.
 - 받은 s'를 새로운 s로 에이전트에게 전달해 에미소드를 계속 진행시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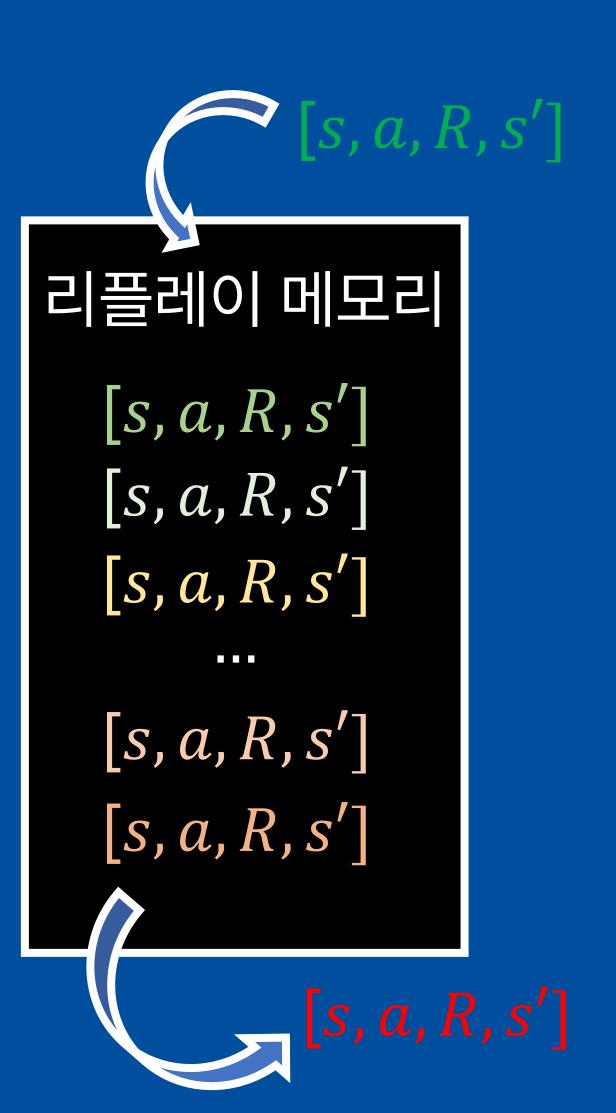
- 리플레이 메모리 + 미니 배치
 -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[s, a, R, s'] 집합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샘플링하고, 이걸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킨다.
 - 이렇게 하면 샘플 사이의 시간적 상관관계가 줄어들고, 살사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줄일 수 있다.

리플레이 메모리



생플
[s, a, R, s']
[s, a, R, s']
[s, a, R, s']

- 리플레이 메모리 + 미니 배치
 -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는 유한하므로,
 리플레이 메모리의 크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.
 - 제한 이상으로 경험이 추가되면 오래된 순서대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지워준다.
 - 그러면 좋지 않은 과거의 경험이 줄어들면서,
 더 좋은 경험이 샘플로 뽑힐 확률이 증가한다.



- 타겟 신경망
 - DQN에서도 딥살사와 비슷하게 오류 함수로 MSE를 사용한다.
 - DQN 에이전트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오류 함수는 아래와 같았다. (2013년)

$$MSE = \left(\text{정답} - \text{예측} \right)^2 = \left(R_{t+1} + \gamma \max_{a'} Q(s', a'; \theta) - Q(s, a; \theta) \right)^2$$
 Set $y_j = \left\{ \begin{array}{ll} r_j & \text{for terminal } \phi_{j+1} \\ r_j + \gamma \max_{a'} Q(\phi_{j+1}, a'; \theta) & \text{for non-terminal } \phi_{j+1} \end{array} \right\}$

 하지만 위 식에는 문제점이 있다.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업데이트될 때 목표가 되는 정답 부분이 계속 변하고,
 그 결과 학습이 굉장히 불안하게 이루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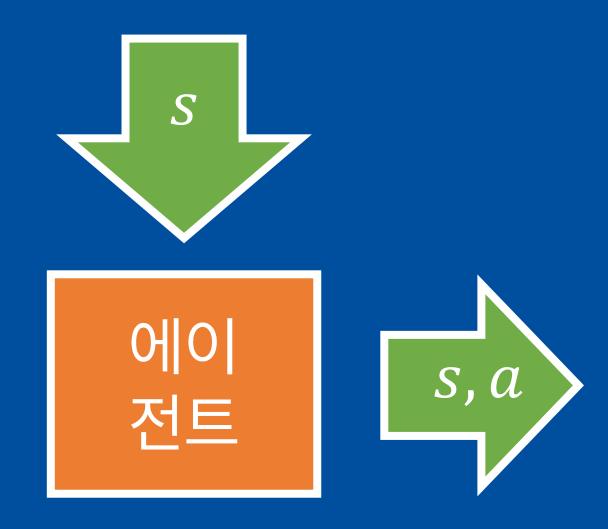
- 타겟 신경망
 - 그래서 θ^- 를 매개 변수로 갖는 타겟 신경망을 추가한다. (2015년)

$$MSE = \left(\text{정답} - \text{예측} \right)^2 = \left(R_{t+1} + \gamma \max_{a'} Q(s', a'; \theta^-) - Q(s, a; \theta) \right)^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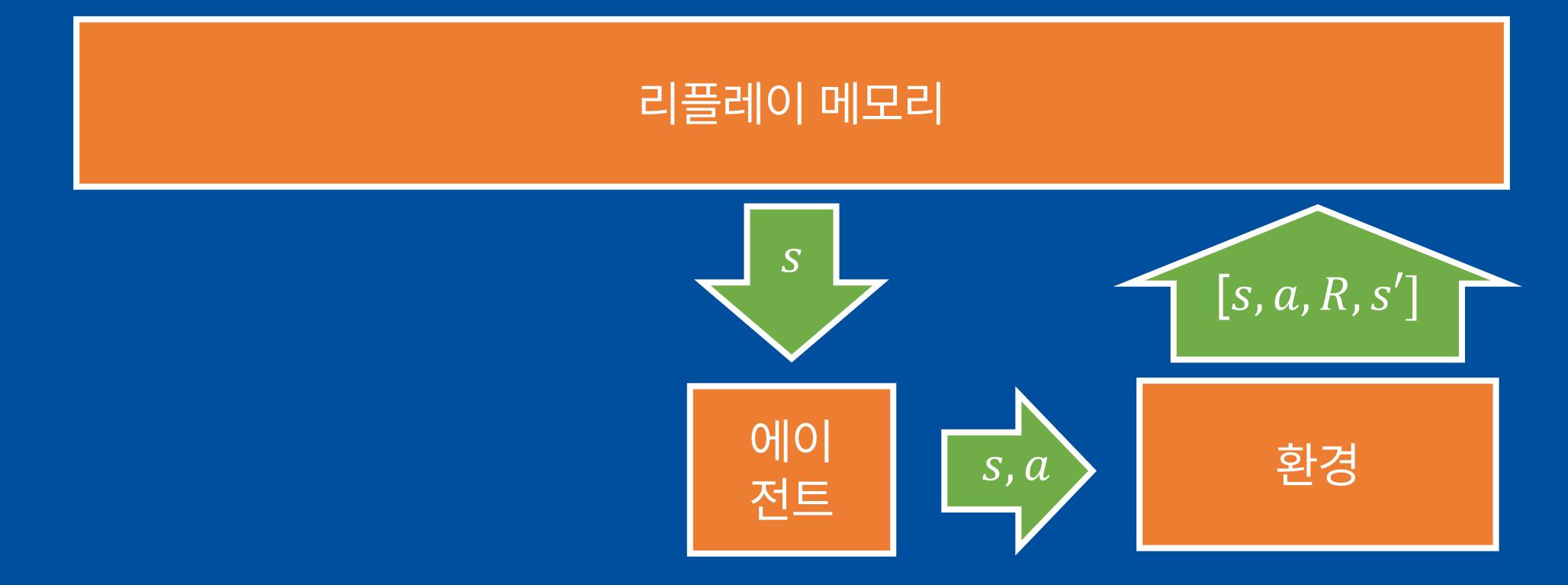
$$\text{Set } y_j = \begin{cases} r_j & \text{if episode terminates at step } j+1 \\ r_j + \gamma \max_{a'} \hat{Q}(\phi_{j+1}, a'; \theta^-) & \text{otherwise} \end{cases}$$

- 타켓 신경망은 일정 시간동안 그대로 유지되며 정답을 만들어내다가,
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된다.
 - → 이를 통해 학습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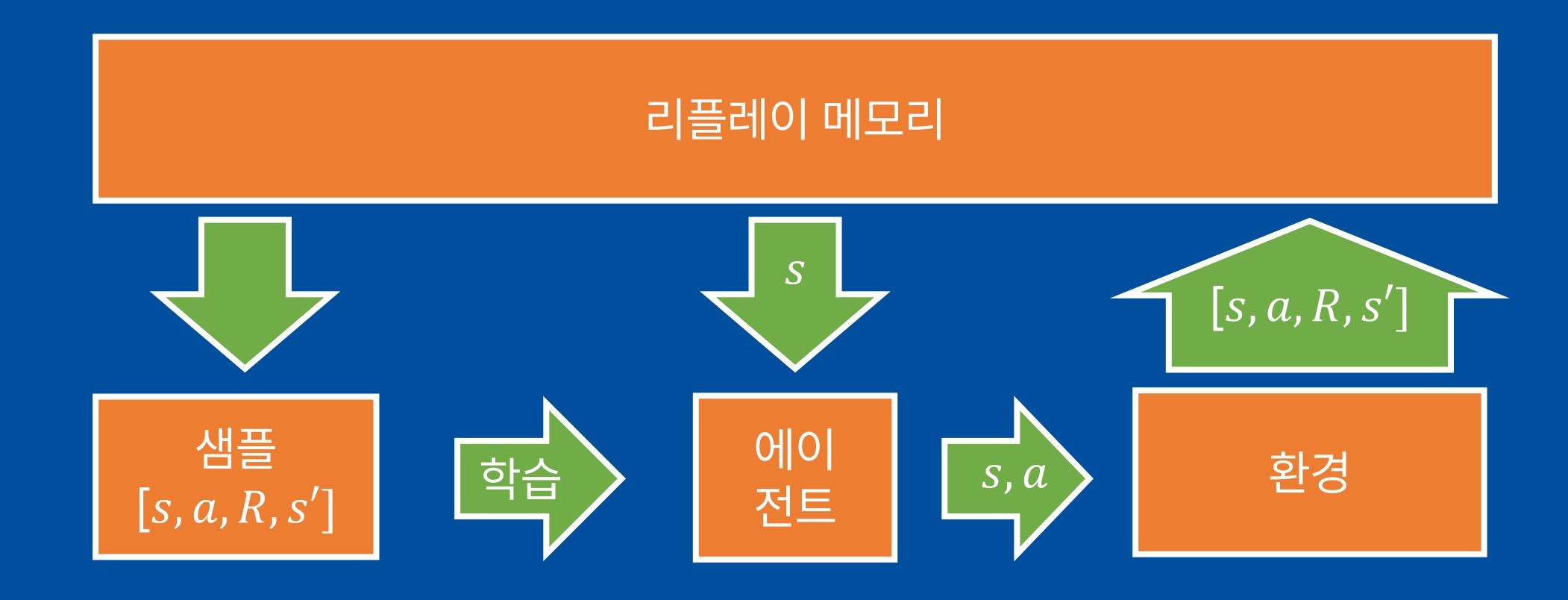
1. 상태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.



2. 선택한 행동으로 환경에서 한 스텝을 진행하고, 샘플을 리플레이 메모리에 저장한다



- 3.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추출한 샘플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킨다.
- 4. 에피소드마다 타겟 모델을 업데이트한다.



감사합니다!

스터디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.